

# 영화 <기생충>에서 나타나는 혐오의 표현과 양상

송다영\*

## 〈차례〉

1. 서론
2. 혐오의 발생과 양상
  - 2.1. 혐오와 가난의 형태, '냄새'
  - 2.2. 혐오와 위선의 '선(線)'
3. 공생에 실패한 자들의 분출된 혐오
4. 결론 : 공생인가 공멸인가

## 국문초록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강한 '혐오'라는 감정이 대두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혐오가 발생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인가. 혐오는 타자와 나를 비교하는 시선에서 비롯한다. 즉, 자신의 결핍을 타자가 충족한 상태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분노가 되며, 분노의 방향성이 단수가 아닌 복합적 다수일 때 그 대상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의 감정으로 확장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영화 <기생충>은 서로 다른 층위에 살아가는 두 가족이 자신보다 자본이 적다는 이유로, 자본이 많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한 불편한 감정이 혐오로 번져 결국 비극을 일으키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박동익의 가족은 김기택의 가족 및 집안 일을 담당해주는 사람들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관계이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이자 서로에게 '기생'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냄새'와 '선'이라는 형태로 약자인 타자에 향한 혐오표현을 표출하는 박동익의 언행으로 타자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드러난다. 그 시선은 김기택으로 하여금 혐오표현에 대한 반응으로 박동익을 살해하는 형태로 이어진다. 김기택의 살해행위는 사회적 규범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에 따라 금기다. 그러나 한 공간에서 공생하던 인물들이 공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택의 살해행위를 유발하는 '혐오'감정의 발생과 표출되는 과정까지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 : 공생, 기생충, 영화, 폭력, 타자화, 혐오, 혐오표현

[www.kci.go.kr](http://www.kci.go.kr)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료

## 1. 서론

우리는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뉴스에 서는 젠더, 인종, 종교, 계급 등에서 '혐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전반에서도 '혐오'에 기인한 사건 혹은 서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적이거나 폭력·선정성이 없는 작품은 조회 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을 담은 작품들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몇몇의 작품에서는 혐오의 감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의 사건들을 콘텐츠에 재현시켜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혐오(嫌惡)는 싫어하는 뜻의 혐(嫌)과 더럽게 여기는 대상을 미워하는 뜻의 오(惡)가 결합된 단어다. 영어로는 Hatred와 Disgust가 혐오로 해석된다. Hatred는 증오의 성격이 강하지만 Disgust는 "라틴어 gustus(맛, 취향)와 접두사 dis가 결합된 것에서 유래"한다. 지각한 감각에 대하여 배설물이나 부패물과 같은 원초적 대상들에 관해 신체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불쾌감과 거부감을 가리킨다.<sup>2)</sup> 그 때문에 Hatred와 Disgust는 같은 혐오로 번역이 되나 본질적으로 '마음'과 '자극'으로 인한 불쾌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단어의 정의를 통해 살펴본 혐오란 어떤 대상을 극도로 싫어하여 그것과의 대면이나 접촉을 매우 꺼리는 감정이라 볼 수 있다.

1) 경향신문, "웹툰 '외모지상주의' 또 혐오 논란... 네이버, '보여주기'만 하면 끝?", 작성일 2020.04.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61610001&code=940100#csidx1a4fa41e09f35cd96936ab71b1ca1e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61610001&code=940100#csidx1a4fa41e09f35cd96936ab71b1ca1e9) 검색일 2020.04.27.

2) 밀리는 tedium vitae (boredom + of life/ Lebenskekel, Lebensüberdruß)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것과 disgust의 공통성 및 차이점을 설명한다. William Ian Miller, *The Anatomy of Disgus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28-31면. ; 신은화, 「혐오와 지배」, 『철학탐구』 제143집, 대한철학회 논문집, 2017, 192면 재인용

누스바움은 혐오에 대한 감정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여길 때 발생하는 신체적 반응이라 말한다.<sup>3)</sup> 누스바움이 혐오 감정의 인지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에 있어 기초로 삼았던 사회심리학자인 로진의 연구<sup>4)</sup>를 보면, 혐오는 감각적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예상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미리 차단하려고 거부하는 반응이다. 전염과 이물질의 오염으로 인해 감염될 것을 두려워하는 미지에 대한 공포는 취약계층으로 향한다. 그 때문에 혐오의 대상은 인종, 종교, 성별, 젠더갈등에서 약자를 향하곤 했다.

그러나 누스바움 연구는 인간이 지닌 '도덕적 혐오'에 대한 측면에서 반발이 있다. "인간이 갖는 동물적 본성에 관한 불안함과는 무관해 보이는 도덕적 타락에 대한 반응으로도 사람들은 혐오의 반응"<sup>5)</sup>을 보이기 때문이다. 문화·정치·사회적인 위치에 도달한 인간이 사회의 질서를 저해하고 규율을 어기는 모습을 본 인간들은 그를 향해 혐오의 감정을 표출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혐오의 방향은 과연 도덕·윤리적 측면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의 혐오는 다각도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상대를 멸시하는 시선, 자신보다 더 가진 자에 대한 분노, 생존을 위해 타자의 자리를 강탈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상대를 혐오한다.

과연 혐오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상대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게 되는 시점을 '결핍'으로 보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일으키고, 과도해진 두려움이 생존권이

3)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168, 201면.

4) 로진은 혐오대상이 갖는 지각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같은 물질이 들어있지만 하나에는 배변이, 다른 하나에는 치즈라는 표지가 붙은 두 유리병"을 피 실험자에게 맡겨 하였을 때, 반응은 극명하게 달라졌다. (고현범, 「누스바움의 혐오 회의론」, 『철학탐구』 제43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6, 140면.)

5) 고현범, 위의 논문, 146면

확실한 이가 표현한 혐오 감정에 자극받아 혐오의 감정이 생성되고, 그 분노가 표출되는 과정까지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생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은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길 바란다. 상대와 비교하는 시선을 통해 자신보다 더 가지고 있는 타인의 것을 욕망하기에 인간의 결핍은 죽는 순간까지 충족되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대한 욕망은 사회적 구조에 의해 생성된 계급의 차이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에 대한 반발심이 생성된다. 자신도 대상이 가진 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평등의 환상'을 꿈꾸지만 막상 그 대상이 자신을 향해 혐오 표현을 하게 되면 인간은 모멸감을 느끼며 동시에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게 된다. 현실을 억지로 마주하게 한 대상에 대한 분노는 대상이 표현한 혐오 표현에 자극받아 대상에 대한 혐오로 변질된다. 체내에 축적된 혐오와 분노의 감정은 도를 넘어서게 되었을 때 폭력적인 형태로 배출될 위험성이 크다. 그 과정을 그려낸 것이 영화 <기생충>이다.

인종과 성을 넘어서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혐오 담론은 상상적 동일성을 지키려는 경직된 경계선의 지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계급적 영역에서 마저 경계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시대의 우울한 혐오 발화는 바로 그 고착된 경계에서 생겨난 것이다.'<sup>6)</sup>

영화 <기생충>은 광의적 측면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갈등을 통해 일반적인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다. '계급 감성'을 공간을 통해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 의견도 존재한다.<sup>7)</sup> 이다운은 연구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와 <기생충>에서 나타나는 계급성에 주목하며 '부조리가 양산되는 이유로 계급 구조의 불평등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6) 나병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혐오발화와 미학적 은유의 응수」, 『청람어문교육』, 제57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221면

7) 동아닷컴, "강남산다고 다 부자인가? 반지하방에도 계급이 있다는데....", 작성일 2019.07.1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1/96432097/1>, 검색일 2020.04.27.

라고 말한다.<sup>8)</sup>

계급성에서 파생하는 불평등에 의한 분노와 혐오의 발생은 사회가 구축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다면 혐의적 측면에서 분노와 혐오는 어디에서 오는가? 혐오는 미워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두려움'에서 시작한다.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정체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위협을 불러일으킨다. 내재된 두려움은 자신을 배제하는 대상에게 분노의 감정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자기합리화의 과정을 통해 두려움의 방향은 또 다른 타자에게 혐오라는 형태로 변질된 감정을 표출한다. 자신에게 두려움을 제공한 대상이 아닌, 또 다른 타자를 향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로 2019년에 개봉한 블랙코미디 장르의 작품이다. 부유층과 극빈층으로 구분된 두 가족의 만남과 파국을 비극·희극으로 그려내고 있다. 역대 황금종려상 수상작 흥행 1위를 달성했으며 한국 영화사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였다. 한국 역사상 두 번째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각본상 수상작, 비영어 영화 최초 SAG 미국 배우조합상 앙상블상, 그리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영화상 수상 및 한국 최초 세자르 영화제 외국어 영화상 수상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의 사회상을 담아낸 작품으로 국내 다수의 연구자들이 작품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육정학은 작품 속의 가족을 박동익, 김기택, 문광으로 집단을 나누어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집'의 이미지와 노동과 가치를 제공하는 입장의 차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중심으로 가족의 형태에 대해 연구하였다.<sup>9)</sup> 생활공간은 사용하는 인물들의 사회적 위치와 생활양식을

8) 이다운, 「영화 <기생충> 연구-희비극으로 재현한 계급공존의 불가능성」,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제101집, 2019, 285면.

살펴볼 수 있는 요소다. 때문에 인물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에 유용한 연구방식으로 한송희는 <기생충>에서 반지하라는 공간이 지니는 함의에 집중하여 현실의 가난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실의 '재현'을 김기택의 집과 냄새라는 '공동감각'을 통해 혐오의 정서까지 재현하는 것에 염려하는 한송희는 가난의 재현전략을 통해 계급적 타자를 재현하는 것에 새로운 토론의 여지를 남긴다.<sup>10)</sup>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을 통해 계급의 탈락의 공포가 혐오가 되는 과정에서 혐오 감정이 대상을 향한 경계가 되었다고 본 성일권<sup>11)</sup>의 연구는 이다운의 연구와 맥이 닿는다. 한송희와 마찬가지로 냄새라는 기표를 연구한 김문주는 냄새의 근원을 반지하로 상정하여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행위가 타자를 향한 배척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손성우는 영화 <기생충>에서 표현되는 '자리'를 통해 인물과 오브제를 정신분석학으로 풀어내었다.<sup>12)</sup> 그는 자리와 욕망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데칼코마니와 같이 수직적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정현경은 설국열차의 '공간의 단절성과 '전진 불가능성'을 내포한 열차의 특징인 거대시스템을 뺀 것을 <기생충>으로 보고 있다. 불평등이 사회나 국가의 차원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환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를 통해 조롱과 경멸 혹은 혐오를 담은 蟲(蟲)에 주목하며 '평등'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대임을 주장한다.<sup>13)</sup>

- 
- 9) 육정하, 「영화 <기생충>을 통해 본 가족과 사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제14집 제5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 10) '가난 포르노'로 지칭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의 부분이 인상 깊다. 그러나 미약하게 다루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한송희, 「가난 재현의 정치학 : 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8권 제1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0)
- 11) 성일권, 「중산층의 '계급탈락' 공포와 증오의 일상성, 그리고 상징폭력」,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9.
- 12) 손성우, 「영화 <기생충>의 욕망의 자리와 환상의 윤리」, 『영화연구』, 제81호, 한국영화학회, 2019.
- 13) 정현경, 「평등의 몰락에 대한 영화적 대응과 의미」, 『비평문학』 제75호, 한국비평문학회, 2020.

영화 <기생충>에 대한 연구들의 키워드는 '해체된 가족', '계급층의 공존', '평등', '공간에 따른 계층의 이미지 분석', '냄새의 근원'으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 서사분석과 정신분석학, 그리고 사회문화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방식이 사용되었다. 한송희와 김문주는 '냄새'에 주목하며 혐오라는 감정에 대한 기표를 연구하였으나 기의의 근원에 대한 결론의 도출까지 이르지 못했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김기택의 가족들을 자본주의적 시점에서 상위층으로 구분되는 박동익의 가족에게 기생하는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각을 비틀어보고자 한다. 프레카리아트에 김기택의 가족을, 숙주를 박동익(이선균 분)<sup>14)</sup>의 가족으로 보는 기존의 연구<sup>15)</sup>와 달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관계성을 김기택의 살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김기택의 살인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계기를 '혐오'에 두고 박동익과 김기택에게 혐오감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고 표출되어 비극을 초래하는지 연구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연구를 위해 2장에서는 <기생충>에서 혐오의 표현이 발생하는 기표를 '냄새'와 '선'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냄새와 선 모두 영화 안에서 공통으로 묶이는 사항이다. 그러나 선은 가시적인 선과 비가시적 선이 존재하기에 냄새와는 구분하여 살펴도록 한다. 3장에서는 상호간의 기생 관계가 손상되는 이유를 혐오 표현의 부작용으로 상정하여 공생과 공존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도록 한다.

## 2. 혐오의 발생과 양상

14) 영화 <기생충>에서 인물들은 박동익을 '박사장'으로 불린다.

15) 이다운, 앞의 논문

사랑은 눈을 멀게 만든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지닌 상대자의 차이를 수용하게 만들며, 기꺼이 상대에게 맞추도록 자신을 낮춘다. 또한, 상대자를 가치가 높게 생각하게 되며 호의적인 선입견을 품도록 한다. 그렇다면 욕망은 어떠한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대해서도 관대할 것인가. 재화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부러움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서 발생한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럴만 하다'라든가 '좋겠다'라는 감정이 이에 해당한다. 상위계층에 진입한 이들의 후일담을 들으며 사람들은 자신도 곧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과 욕망은 '희망'이라는 것에 의해 열망한 대로 손에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는 '평등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불평등으로 점철된 사회에 우리는 종속되어 있고,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중민주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들의 시선, 자신을 타인들과 비교하는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sup>16)</sup> 자유주의라는 명목 하에 <기생충>이 반영하는 한국은 빈부격차의 폭이 크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인 편에 속한다. 그러나 평등에 대한 갈망이 깊어질수록 평준화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던 희망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사람들이 바라던 평준화는 다른 의미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희망했던 평등사회가 이루어졌을 때를 꿈꾼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자와 비교하는 삶 속에서 좌절이 잦은 빈도로 찾아오고, 반복되는 좌절에 결국 차별받는다는 감정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볼츠에 의하면, 르상티망은 성공에 대한 증오심이다. 질투하는 자는 성공을 증오하는데, 그는 타인들의 풍요로운 재산뿐 아니라,

16) 정일권, 『질투사회』, CLC, 2019, 379면.

그런 성공을 비로소 가능케 한 규율과 고된 노동에 대한 요구들도 증오한다고 볼츠는 적고 있다. '질투 속에서 평등을 향한 열정은 자유를 파괴할 위험에 놓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권리와 형식적인 사회적 기회 평등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권력, 재산 그리고 명성에 있어서 실제적인 불평등들은 더욱더 현격히 보이게 한다.<sup>17)</sup>

이렇게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형태가 왜 만들어지게 되는가? 자신의 결핍보다 타자의 결핍 및 부적절성을 찾아냄으로써 미움이라는 감정을 혐오로 발전시키게 되는 과정엔 어떤 계기가 존재하는 것일까?

멘델스존은 혐오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sup>18)</sup>

첫째, "혐오는 대상과의 거리가 파괴될 때 생긴다." 영화 <기생충>은 박동익과 김기택이 '산과 '냄새'라는 형태로 서로 간의 거리를 넘게 되며 벌어지는 비극을 다루고 있다. 김기택이 박동익을 향한 과도한 개입, 박동익은 김기택을 향한 멸시의 태도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파괴" 시켰다. 그들은 서로의 거리를 파괴함으로써 혐오의 씨앗을 받아시키고 성장시키며 결국 살인과 죽음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결말을 맞이한다.

둘째, "혐오는 과도한 충족으로부터 생긴다." 결핍을 충족한 뒤에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껴야 할 상태에서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대상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쾌적함을 유지해야 한다. 김기택의 가족들은 비가 오면 빗물로 인해 재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반지하 방에서 살아왔다. Wi-fi조차 다른 가정의 것을 훔쳐 쓰고 피자 박스를 접어서 납품해야 입에 간신히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궁핍했던 처지였다. 그러나 박동익의 가정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김기택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누리지 못했던 충만하고 부유한 생활을 목도할 수 있었다.

17) 정일권, 앞의 책, 378면.

18) John T. Nockleby, "Hate Speech," in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Ed. <[http://southernlibrarianship.icaap.org/content/v09n02/brown-si\\_ca\\_m01.html#\\_edn2](http://southernlibrarianship.icaap.org/content/v09n02/brown-si_ca_m01.html#_edn2) 재인용. 검색일 : 2016.12.15.>

고용주의 비위를 맞춰야 하지만 번듯한 옷을 차려입고 사회에 발을 들여 놓으며 피자 박스 아르바이트를 할 때와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되자 그들은 포만감을 넘어서서 더 큰 것들을 노리기 시작한다. 이미 그들은 박동익의 집에서 고용되었던 이들을 쳐내고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존재 위치를 상기시키는 김기정과 박동익 가족의 은밀한 멸시의 시선에 의해 자신들의 고용주인 박동익에게 혐오의 감정을 품게 되어버린다. 결국 김기택은 박동익을 리스펙 한다며 머리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오근 세와는 다른 방식을 택하고 만다. 자신들의 생계를 윤택하게 해준 박동익에 대한 존경심이 박동익의 혐오에 변질된 순간 김기택 또한 상대를 향한 혐오의 감정에 빠진다.

마지막으로 "시각과 청각의 감각은 대상을 직접 수용하지는 않지만, 과도함에 의해서 혐오를 유발"한다. '산'과 '냄새'는 시각의 영역에서 보이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자신만의 틀의 경계가 '산'이며, 후각을 통해 지각되는 '냄새'는 서로에게 인지되는 사항이다. 장미의 향긋함과 달리 가난을 상징하는 '냄새'는 특히 박동익이 자신보다 낮춰보는 경제적 결핍자에 대한 혐오 기제가 바탕이 된다. 그 때문에 박동익은 김기택의 '산'을 넘었고, 김기택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시선으로 인해 내재됐던 분노가 혐오가 되어 발산된 것이다. 혐오는 "강한 반감이기에 급작스럽고 또 그런 만큼 실제적"이기에 내재된 부정적 에너지가 혐오 표현으로써 외부로 표출되었을 때에 그 강도가 강할 수 있다.<sup>19)</sup>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종교 또는 성적 취향 등과 같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하여 당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악의나 의도적인 폄하, 경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

19) 고희범, 「칸트 철학에서 혐오 감정」, 『범한철학』 제82집 제3호, 범한철학회, 2016. 175-176면 참조.

련의 의사표시"를 일컫는다. 불쾌함이 내포된 무례한 표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대상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고취'하는 표현은 대상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개인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혐오의 감정과 위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sup>20)</sup> 또한 혐오 표현은 대상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대상에게 멸시의 시선뿐만 아니라 행위로 이어지는 혐오 표현은 대상의 존재가치를 폄하시킬 수 있다.<sup>21)</sup>

영화 <기생충>에서의 혐오표현은 '냄새와 '선'이라는 관념적인 표현으로 등장한다.<sup>22)</sup>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매우 주관적인 관념인 혐오 표현을 언행을 통해 드러내는 박동익에게 김기택은 상처를 받고 분노의 충동을 박동익에게 배출한다.

<기생충>에서 사회적·물질적으로 상위층에 놓인 박동익은 '선(線)'을 강조한다. 그러나 무례함을 경멸하며 교양 없는 것을 싫어하던 박동익이 혐오의 희생자가 된 것은 자신이 강조했던 '선'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박동익이 자신의 아내인 최연희의 혐담을 늘어놓자 김기택은 “그래도 사모님을 사랑하시죠?”라고 물으며 선을 넘었다. 그러나 그 전에 박동익은 김기택을 떠올리며 “냄새가 선을 넘는다”며 자신만 유쾌하게 여기는 농담을 던진다. 박동익은 김기택의 사적인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김기택에게 모멸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분노를 내재시켜 분출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선으로 가린 우월의식이 드러나는 이중적인 태도의 탈의 안을 보게 된 김기택은 자신을 혐오하는 박동익에게 혐오의

20) 이광진,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법과 정책연구』 제17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 341면.

21) Jeremy Waldron,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홍성수·이소영번역, 이후, 2017, 16-17면. ; 정다영,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27면 재인용.

22) 원아시아, [TEN 인터뷰] 송강호 “기생충의 김기택은 감정의 낙차 폭이 큰 인물이지요”, 작성일 2019.05.31.,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312/0000390793>, 검색일 2020.04.29.

감정이 생성된다."결국 사랑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려는 시도가 박동익에게 선을 넘는 행위였다면 김기택에게는 냄새라는 아주 내밀한 영역을 지적하는 것이 선을 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서로의 거리가 지켜지지 못했다.<sup>23)</sup>

## 2.1. 혐오와 가난의 형태, '냄새'

<기생충>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냄새'다. 그만큼 '냄새'가 영화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봉준호 감독이 "(냄새는) 이 영화에 가장 중요한 모티프다. 서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냄새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공격적이고 무례한 것인데, 이 영화는 아주 사적인 것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 "고 언급한 만큼 냄새라는 단어는 민감한 영역에 해당된다. 때문에 본 연구에는 <기생충>에서 '냄새'라는 것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4)</sup>

"오염의 확장은 사회적 경계 긋기를 통해 매개되며, 그 결과 혐오를 유발하는 것은 오직 이러한 경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기생충>에서 냄새가 넘어오는 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장 불쾌한 혐오 표현을 드러내는 인물은 박동익이다. 박동익은 우아하고 잘 정돈된 상류층의 사람을 연기한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상대의 뒤에서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자신보다 아래에 놓인 계급이라는 의식이 기반인 박동익에게 그들의 행위는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혐오함으로써 자신과 확연한 차이이자 선이 존

23) 한송희. 앞의 논문, 24-25면.

24) 서울경제, [종합]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던진 질문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엄", 작성일 2019.05.28.,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BH6EPH3>, 검색일 2020.04.29.

25)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27면.

제한하는 것을 스스로 주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냄새’는 혐오감이 오염물에 일단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고 청결한 면역 주체가 되려는 주체의 욕망에 부합한다. 대다수 사회는 자신들의 사회를 건강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순결한 집단/오염된 집단으로 구분하고 오염된 집단을 끊임없이 추방하고 배제하고 학살<sup>26)</sup>해왔을 만큼 불쾌한 냄새는 즉 배척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화에서 냄새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인물은 박동익의 아들인 박다송이다. 박다송은 작품에서 가장 순수한 인물로 편견에 물들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표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박다송이 김기택과 박충숙의 냄새에 "어? 똑같다. 둘이 냄새가 똑같아."라고 말한 것은 순수했기에 김기택에게 더욱 폭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박다송은 이어서 "제시카 선생님한테서도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박다송의 냄새를 향한 지적은 의도치 않았지만 김기택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조장한다.

김기택의 가족 중에서 ‘냄새’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한 인물은 ‘김기정’이다. 김기우는 박동익의 가족에게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빨래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기정은 냄새의 원인이 "반지하 냄새야."라며 "이 집을 떠나야 냄새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김기택이 냄새에 대한 실체를 알아채는 계기는 박동익의 말을 엿듣게 된 상황에 있다. 박동익의 가족은 박다송의 생일을 맞이하여 캠핑을 떠난다. 그 사이에 김기택의 가족들은 박동익의 빈 집에서 그들만의 연회를 연다. 잠깐의 행복을 누리는 그들에게 최연교는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집에 돌아가고 있다고 연락한다. 미처 피하지 못한 김기택의

26) 임옥희, 「혐오발언, 혐오감, 타자로서 이웃」,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93면

가족들은 '바퀴벌레처럼' 거실 소파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 간다.

거실에서 잠들기로 한 박동익과 최연교는 소파에 함께 눕는데, 김기택의 냄새를 감지한다. 박동익은 '김기사님 스멜이 난다며' 은은하게 천에 퍼져있는 냄새데. 그걸 뭐라 그러냐고 최연교에게 묻는다. 최연교는 '노인 냄새'라 일컫는 냄새의 정체를 박동익은 "그 오래된 모발약 냄새? 아 아니다. 행주 삶을 때 나는 냄새."등에 비교한다. 냄새에 집중하던 박동익은 지하철 타면 나는 특유의 냄새라며 운전석의 김기택의 냄새가 차 뒷자리로 넘어온다며 분노한다.

박동익이 분노하는 냄새는 결국 가난한 이들이자 사회적 지위에서 약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박동익은 자신의 집에 벤 김기택의 가난의 냄새를 감지한다. 최연교 또한 노인 냄새라며 넌지시 김기택의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지했다. 부부는 김기택이 자신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존재하리라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부는 김기택을 향한 냄새의 근원이 가난에 있음을 김기택에게 주지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림 1] 자신에게서 나는 '가난의 냄새'를 확인하는 김기택

[그림 1]에서 김기택은 자신의 옷깃을 끌어당겨 자신의 '냄새'를 확인한다. 김기정이 말했던 '가난의 냄새'를 직면하는 김기택은 가족들 앞에서 무장이 해제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냄새'를 확인한 김기택의 행동은 '외상성 신경증과 유사하다. "외상적이라 부르는 경험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강한 자극을 주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sup>27)</sup> 김기정으로 인해 냄새의 원인이 '반지하이자 가난으로 인한 것임을 심적으론 알고 있었으나, 직접 박동익의 발언을 통해 자신이 박동익에게 있어 혐오의 대상임을 알게 된 김기택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박동익의 선처 덕분에 위태로웠던 생존에서 조금 더 욕심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델로 박동익에게 충성과 선망의 마음을 지녔던 김기택이었다. 그러나 김기택은 박동익의 곁에 있으면서 그와 동등한 조건에 올라섰다고 오해를 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 때문에 김기택이 박동익에게 받은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온 것일 수도 있다.

나의 실재는 타자의 담론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타자의 시각에 비추어진 '나'라는 대상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다. '나'라는 존재가 이야기할 때, 무의식 속의 '나'라는 존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의식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존재는 타자다. "라캉은 '무의식은 대문자의 타자의 담론이다'라고 무의식을 정의"한다. 박동익은 김기택의 존재를 '지하철에서 말할 수 있는' 혹은 '행주를 삶는 냄새'로 치부하며 김기택의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sup>28)</sup>

박동익의 운전기사로 직책이 생긴 김기택은 잠시 박동익에게 신세를 지지만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짐작했으나, 박동익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해서는 안 되었다. 박동익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함으

27) 캐롤린 엠케, 『혐오사회』, 정지인 옮김, 다산초당, 2017, 194면.

28) 신구 가즈시게, 『라캉의 정신분석』, 김병준옮김, 은행나무, 1995, 124면.

로써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 했던 김기택은 자신이 선망했던 박동익의 환영이 사라지자 '의미가 비어버린' 욕망의 자리에 분노를 축적하기 시작한다.<sup>29)</sup>

## 2.2. 혐오와 위선의 '선(線)'

영화 <기생충>의 '선'은 위선의 선과 사회적으로 각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선, 가시적인 선, 그리고 비가시적인 선으로 표현된다. 선(線)은 '선(line)은 인간에 의해 지각된 자연에 실재하지 않는 관념'으로 점의 무수한 움직임의 연결이다. 물체와 물체, 혹은 매체나 도구에 의해 접경부분이나 대상과의 구분을 위해 특정 부분을 가로 지를 때 표현되는 것으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 메시지를 관람자에게 전달하는 시각적인 역할을 수행한다.<sup>30)</sup>

우선 위선의 선을 넘는 인물은 박동익과 최연교다. 기존의 문화콘텐츠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상류층의 오만함이나 무례한 모습은 타자의 앞에서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정돈된 말투와 정중한 태도로 사용인들을 대하는 박동익과 최연교는 사실상 겉과 속이 다른 아이러니한 인물들이었다. 박동익은 자신이 차에서 속옷을 발견한다. 김기정이 윤기사를 모함하기 위해 남겨둔 속옷이지만, 박동익은 자신의 영역에 불결한 것을 남겨둔 것이 윤기사라고 단정짓는다. 직접 윤기사에게 상황을 따져묻기보단 '점잖고 무난한 핑곗거리를 잡아서 해결하려는 박동익의 태도는 정말 점잖은 처리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기보단 상대를 향한 혐오의 감정을 우선시하여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배척하려는 태도를 통해 박동익과 최연교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인물임을 암

29) 신구 가즈시게, 위의 책, 129면.

30) 안은선, 「공간에서의 선의 조형성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제23집 제1호,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20, 72면.

시한다.

가시적 선은 영화의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박동익의 선을 넘어서지 않는 김기택의 모습

[그림 2]에서 유리창을 경계로 김기택은 박동익을 바라본다. 박동익과 김기택의 사이에 놓인 유리창엔 두 장이 겹쳐지며 만들어진 '선'의 경계가 있다. 충분히 유리창으로 김기택과 박동익은 구분되어있다. 화면상에 선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박동익과 김기택의 사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유리에 그려진 선을 중심으로 박동익은 김기택과 거리가 떨어져있다. 반면에 김기택은 유리창의 선에 붙어서 앉아있는 모습이다. 구직을 위해 박동익에게 먼저 다가서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김기택이 박동익을 향한 호감과 선망의 마음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에 앉아 둘러싸여 있는 박동익과 달리 김기택의 주변엔 제 할일을 하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가 인식되지 않는 모습이다.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 김기택과 박동익은 투명한 유

리창 탓에 평등한 관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유리 장벽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림 3] 박동익의 저택의 정원에 누운 김기우

[그림 3]에서 김기우는 박동익의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원에 누워 일기를 읽는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힘들었던 반지하의 그늘진 공간이 아닌 햇볕이 내리쬐는 공간에 누운 김기우는 빛과 그림자의 경계선에 밀접하게 붙어 누워있다. 정원목의 경계와 햇볕의 공간, 그리고 그림자의 공간 세계로 분할된 장면 속에서 김기우는 협소하지만 모습이 훤히 드러나는 공간에 변하게 누워있다. 가족들은 김기우가 보이는 거실에서 노래를 틀고 박동익 가족이 누리는 삶을 간접체험한다. 즉, 김기우가 넘어간 선은 노동력의 댓가로 고용료를 받는 이들이 집주인의 허락없이 생활공간을 침범함으로써 스스로의 통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함축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비가시적 선에서 박동익이 국문광에 대한 평가를 예로 들 수 있다. 박동익은 국문광을 "상당히 괜찮은 아줌마"로 평가한다.

"집안 구석구석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매사에 선을 딱 잘지켜.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뭐래나. 그 단점은 딱 하나? 너무 많이 먹는 거. 매일 뭐 임프루트 해졌대나. 하긴 뭐. 그만큼 일을 또 많이 하니까."

위의 대사에서 보듯 박동익은 '선'을 강조하며 책무만 모두 수행한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의 소유자다. 박동익에게 있어 '선'은 넘어오면 혐오하게 되는 최소한의 거리다. 그 때문에 "경계를 세움과 동시에 이 경계를 위반하고 경계를 관통하거나 가로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김기택이 박동익의 차를 운전하며 "그래도 사랑하시죠?"라고 한 말은 김기택의 냄새와 함께 차 뒷자리로 넘어가버린다. 냄새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말은 상대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인식하는 순간 경계를 허무는 경향이 있다. 그 관계의 거리가 나와 상대가 동일하게 가까워졌으면 친밀감의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김기택과 박동익은 그렇지 않았다. 내밀한 사적영역으로 침범해 오는 김기택의 말에 박동익은 김기택을 향해 혐오의 감정을 내재화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구축해놓은 '선'을 넘어오는 김기택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불쾌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김기택은 박동익이 자신을 향해 점차 혐오를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김기택은 박동익의 가족들이 "부잔데 착하다니까"라고 오해한다. 박충숙은 "돈이 대리미"라며 "구김살을 짝 펴준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돈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어 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박동익의 가족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심이 내포되어 있으나 불만이 생성되지 않고 있기에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성되지 않았다.

욕망은 타자로 인해 생성된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인 주체들은 타자로부터 기인한 욕망을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의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착오를 한다. 타자가 소유한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생성된 욕망을 본인의 내부에서 생성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는 욕망의 근원을 직접 볼 수 없다.

욕망의 주체는 중개자와의 관계가 외면적 간접화로 마주했을 때 대상에 대한 질시와 증오할 가능성이 적다. 외면적 간접화에서 중개자는 욕망

의 주체에게 모델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그러나 욕망의 주체와 중개자의 관계가 내면적 간접화로 접어들면 관계는 달라진다. 중개자는 욕망의 주체에게 모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성취한 욕망의 결과물들을 전시한다. 또한 중개자와 욕망의 주체의 반경이 서로 중첩되는 것이 내면적 간접화다. 그로 인해 중개자는 욕망의 주체에게 있어 방해자의 존재로 인식된다. 경쟁의식으로 발현되는 욕망의 주체자의 갈망은 중개자가 자신은 얻지 못한 무언가를 성취하였을 때 중개자를 향한 증오심을 품게 된다. 성취에 대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욕망의 주체자는 중개자에 대한 동경의 시선이 폄하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정당하게 쟁취한 결과물 또한 부당한 것으로 여긴다. 지라르는 증오심이 주체들의 눈을 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중개자를 모방하고 싶은 마음과 중개자를 방해꾼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뒤뜰린 감정은 주체를 괴롭게 만든다. 주체는 중개자를 향한 증오와 분노, 질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대상을 향한 혐오로 변질시키는 합리화 과정을 겪는다.<sup>31)</sup>

이러한 합리화 과정을 겪은 김기택은 박동익에 내면적 간접화의 부작용을 분노의 배출로 행동한다. 이를 수 없는 환상이자 타자의 삶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김기택은 허공에서 부유하는 채로 길잃은 분노의 감정이 가득한 혐오를 박동익과 환상의 빈 자리에 겨눈다.

### 3. 공생에 실패한 자들의 분출된 혐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에 대하여 “인간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에 따라 영화 제목처럼 ‘기생’이 되느냐, 좋은 의미의 ‘공생, 상생’이 되는지 달라질 것 같다”<sup>32)</sup>라고 말을 남겼다.

31) 윤하나·김상호, 「욕망을 추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거리와 혐오의 일상화」, 『언론과 사회』 제26집 제1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8, 21~23면 참조.

누스바움은 “정말이지 혐오는 한 사람의 인간적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주저 없이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혐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sup>33)</sup> 즉, 자신의 결핍에 대한 대체재로서 타자를 거리낌 없이 희생시키는 사람들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혐오는 우리를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 혐오는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본래부터 자기기만적인 감정이다. 좋게 작용하든 나쁘게 작용하든 간에 혐오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기 힘든 우리 자신에 관한 사실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sup>34)</sup>

혐오는 사람들의 눈에 떨 수 없다. 분노에 점철된 눈으로 혐오의 근원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혐오에 물든 사람들은 본연의 모습을 잃는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침입해 들어오는 대상을 향한 부정적 감정인 혐오는 누스바움의 말처럼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방어막으로 쓰일 뿐이다.

혐오의 감정이 부추겨지면, 인간은 자신에게 혐오심을 제공하는 대상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혐오범죄'로 이어진다. 혐오범죄는 폭력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기에 '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발생론적 사유로 확장된다. 폭력은 관계성을 주목해야 한다. "모든 폭력은 관계 속의 폭력"이라는 의미하에서 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 집단과 집단의 관계를 포함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체계를 말한다. "관계 속의 폭력"이라는 말은 폭력이 결국은 나 혹은 집단의 동일성과 타자의 문제"다. 즉, 폭력의 기원이 타자성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35)</sup>

32) 서울경제, 앞의 자료,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BH6EPH3>.

33) 마사 누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강동혁옮김, 뿌리와이파리, 2016, 61면.

34)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377~379면.

35) 최성희, 「폭력과 초월-타자에 대한 폭력과 타자성의 폭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카운터 아이덴티티’.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 중 하나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는 믿음이다. 그러나 취업, 입시, 연애, 결혼, 정치적 입장 등의 이유로 사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성을 발휘하여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 공격성이 자신을 향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과 자기학대, 무력감이 나타난다. 공격성이 외부로 향하면 타인들과 사회가 틀렸다는 믿음을 스스로 주입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 가치와 반대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자기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카운터 아이덴티티’다. 악플을 쓰면서 ‘사회 정의를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믿거나 신상 털기를 하면서 ‘다수의 알 권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자기 보호를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그러나 김기택은 ‘카운터 아이덴티티’를 박동익의 살해를 통해 발현하게 됨에 따라 공격성이 외부로 향하게 되었고, 사회가 틀렸다는 믿음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의 동의를 받게 되었다.

칼을 사용한 폭력은 이성을 잃은 오근세로 인해 먼저 발생한다. 김기택의 가족에 의해 뇌진탕으로 사망한 아내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오근세는 광기에 사로잡힌다. 오근세는 김기택의 가슴에 칼을 꽂아 넣는다. 오근세의 살인 행위에 ‘지하실 귀신’을 상기한 박다송은 혼절한다. 박충숙은 딸을 공격한 오근세에게 꼬챙이를 찔러넣는 보복을 가한다. 박동익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김기택이 아닌 기절한 아들을 병원에 옮기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눈 앞에서 벌어진 참상에 흥미해진 김기택을 향해 박동익은 얼른 차키를 던지라고 종용한다. 김기택이 던진 차키는 오근세의 시신 곁에 떨어지게 된다.



[그림 4] 오근세의 시신에서 나는 지하실의 냄새에 코를 막는 '혐오표현'을 하는 박동익

[그림 4]에서 박동익은 차키를 줍는다. 케이크와 오물, 그리고 피로 오염된 오근세의 시신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와 박동익의 감정이 외부로 극명하게 표현된다. 인상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코를 막는 행위로 역한 냄새를 향한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나리는 존재가 타자에게 가하는 폭력 가운데 가장 침예하게 부각되는 것은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다. 또한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은 육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의 폭력과 다른 면에서 가학적인 형태로 정신에 상흔을 남긴다.<sup>36)</sup> 김기택과 오근세는 먹이사슬처럼 서로에게 혐오감을 제공한 대상에게 동일한 '칼을 꽂음으로써' '정신적 상흔'을 남긴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다. "분노는 눈에 띄지만 방어능력이 없는 이들을 향해 분출된다."<sup>37)</sup>

그러나 쉽게 치유되지 못하는 깊은 상흔을 남기는 폭력은 심리적 모멸감이다. 냄새에 대한 극명한 불쾌감을 표현한 박동익의 모습에 김기택은 바퀴벌레처럼 숨어들었던 날 박동익이 자신을 향해 표현한 혐오감을 떠올

36) 김혜영, 『분열된 주체와 무의식』, 푸른사상, 2013, 120면.

37) Max Horkheimer, Theodor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Frankfurt am Main, 1989, S.179. ; 막스 호르크하이머, 테오도르 W.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1.

린다.

혈혼이 낭자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판단할 새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방어기제는 김기택의 내재된 분노에 자극을 가한다. "분노에는 언제나 그것이 발생하고 표명되는 특정한 맥락이 있다. 증오의 근거로 언급되는 이유들, 어떤 집단이 증오해야 '마땅하다'며 갖다 대는 이유들"<sup>38)</sup>에는 여러 사정이 담긴 계기가 존재한다.

분노와 혐오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향한 자극에 반발하여 반응하는 현실적인 감정의 움직임이라면 혐오는 자신의 틀 안에 구축된 내면이 타자로 구분된 이질적인 것에 느끼는 예상의 측면에 속하는 반응이다. "분노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 연대를 이뤘을 때 정당한 비판적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와 달리 혐오는 타자에 대한 공감이 없기에 분노와 차별성을 지닌다. 분노가 혐오로 변질되는 과정에는 "자기 안의 타자성을 부인하고 상상적 동일성으로 피신하려는 자기부정의 행위가 숨겨져 있다."<sup>39)</sup>

혐오 표현은 "사회의 정상적 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행위나 속성으로 연결해서 혐오 표현 대상인 집단 구성원의 사회적 평판의 기초를 손상할 의도의 목적을 가지고 공표"되기 때문에 박동익의 코를 막는 행위는 김기택의 분노와 증오를 '혐오'의 감정으로 전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sup>40)</sup>

"증오는 대상을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증오의 대상은 "객관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며 위협하고 강력한 존재"여야 한다.<sup>41)</sup> 오근세는 김기택을 향해서, 김기택은 박동익을 향해서, 박동익은

38) 캐롤린 엠케, 앞의 책, 76면.

39) 나병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혐오발화와 미학적 은유의 응수(應酬)」, 『청람어문교육』, 제57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230면.

40) Jeremy Waldron, 앞의 책, 16-17면. ; 정다영, 앞의 논문, 127면 재인용.

41) Aurel Kolnai, Ekel Hochmut Hass, *Zur phänomenologie feindlicher Gefühle*, Frankfurt am Main, 2007, S.102 ; 캐롤린 엠케, 앞의 책, 61면 재인용.

오근세의 냄새를 향해서 혐오를 드러낸다. 그 관계성 속에서 각자의 존재는 서로에게 실례를 범하는 인물들이자 서로가 서로의 힘에 의지해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강력한 존재이다.

결국 박동익은 자신이 김기택에게 남긴 정신적 상흔으로 인해 살해를 당함으로써 세계에서 제거된다. 박동익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마주한 김기택은 "기존의 익숙한 세계, 나의 집을 파괴해버리는 힘"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자신이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고 만다.<sup>42)</sup>

#### 4. 결말 : 공생인가 공멸인가

영화의 제목인 <기생충>을 살펴보면, 기생(寄生)이란 말엔 '공생(共生)'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sup>43)</sup> 물론 '기생'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순 없다. 그러나 공생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자 종류가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서 살며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가는"<sup>44)</sup> 것으로 기생과 공생은 상호관계성을 지닌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종의 생명체가 상호 영향을 주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공생이라 한다. 공생 관계의 두 생명체가 크기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생명체를 다른 생물체의 숙주라 부른다. 공생 관계의 두 생명체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한쪽만이 이익이 되고 다른 한쪽에는 해가 가는 관계인 기생(parasitism)과 한쪽만이 이익을 얻고 다른 한

42) 서동욱, 앞의 책, 123면.

43)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함께 생활하며, 한쪽이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이 해를 입고 있는 일, 또는 그런 생활 형태를 일컫는다.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더부살이'로 순화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기생'의 사전적 의미

44) 표준국어대사전, '공생'의 사전적 의미

쪽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인 편리공생(commensalism), 쌍방이 서로 이익을 얻는 관계인 상리공생(mutualism), 한쪽만이 피해를 보고 다른 한쪽은 아무 영향 없는 관계인 편해공생(amensalism)으로 분류된다.<sup>45)</sup>

영화 <기생충>에서 기생하고 있는 것은 김기택의 가족과 오근세, 국문광 부부뿐일까? 아니다. 국문광과 박충숙의 도움으로 집안이 전쟁터로 변모하지 않았고, 김기택의 부드러운 코너링으로 박동익의 출퇴근길은 순탄해졌다. 기존에 박동익의 집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지내왔던 박동익은 김기택의 가족과 국문광의 도움으로 더 윤택한 생활을 집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박동익이 돈을 지불한다고 하나 김기택의 가족들은 그의 전화 한 통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자신들에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휴일마저 근무하게 하는 박동익에게 김기택의 가족은 큰 불만 없이 움직인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영화 <기생충>에서 기생하지 않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모두가 서로에게 기생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 하고 있다.

다만 '충(蟲)'이라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명칭이 붙게 되는 경우를 보면 김기택을 향하고 있는 메세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타자의 배려가 없는 언행을 반복했던 '박동익'에게도, 박동익의 발언에 동조했던 '최연교'도, 남편의 생존을 위해 저항과 굴복을 반복한 '국문광'도 모두 관객에게 혐오의 감정을 제공한다.

결국 <기생충>은 '공생 이야기'이자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감독은 인간에 대한 애정 (공생)으로 접근하지만 결국 결말은 인간에 대한 환멸 (공멸)을 관객들에게 주시시킨다.

사람의 인식은 참으로 재밌게도 택시기사, 청소용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간혹 '없는 사람'처럼 여긴다.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45) 표준국어대사전, '숙주'의 사전적 의미

것도 문제지만 감정도, 의식도, 그 무엇도 지니지 않은 무생물로 인식하는 비가시성의 특징이 발현된다. “기괴함은 지나치게 가시적이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시선조차 돌리게 만들며, 비가시성은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조차 차단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게” 만들기 때문이다.<sup>46)</sup>

영화 <기생충>은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꼬집어서 스스로 비판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다만 <기생충>의 목적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메세지의 전달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전반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혐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 타자를 인식하고 배려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혐오’는 무서운 감정이다. ‘공포’가 바탕이 된 분노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강화된 분노는 혐오로 이어짐에 따라 자신이 타자화시킨 혐오의 대상을 향한 테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혐오’는 앞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여 ‘공포’를 가중하는 증폭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또다시 분노가 중첩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공생’하는 삶이 아니라 ‘공멸’을 향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기생충>에서 나타난 증오의 양상과 표현을 연구하였다. 작품 속에서 큰 갈등을 겪는 두 가족은 경제 자본의 보유량을 기준으로 상하관계로 그려진다. ‘선’과 ‘냄새’라는 은밀한 금기를 넘나들며 김기택은 박동익에게, 박동익은 김기택을 향해 멸시와 시기, 그리고 질투의 감정을 ‘혐오 표현’을 통해 표출한다. 그 결과, 박동익은 무의식에서 유발된 악취를 막기 위한 ‘코를 막는’ 행위를 함으로써 김기택의 혐오 감정을 폭발시킨다. 격화된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행한

46) Elaine Scarry, “Das schwierige Bild der Anderen”, Friedrich Balke, Rebekka Habermas, Patrizia Nanz, Peter Sillem (Hrsg.), Schwierige Fremdheit, Frankfurt am main, 1993, S.242 ; 캐롤린 엠케, 앞의 책, 62면 재인용

살인으로 인해 김기택은 오근세가 숨어 지내던 지하실에 숨어들으로써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를 획득한다.

생존이 절실했던 김기택의 가족들은 박동익의 저택에 들어가 일하게 됨으로써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는다. 일정한 수입으로 안정되는 가정생활에 가장 큰 결핍이 해소되자 김기택의 가족들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결핍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핍의 원인은 선망이자 구원자이자 동경의 대상인 박동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예의와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 같았던 박동익과 최연서가 사실은 아이러니성을 지닌 인물로 타자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인물임을 알게 된다. 선을 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박동익의 배려가 없는 생각을 엿본 김기택은 상처를 입고 박동익의 혐오에 분노를 느낀다. 생존권이 보장됐으나 존재에 대한 부정을 당한 김기택의 내면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분노와 결합되어 대상에 대한 폭력으로 혐오감을 표출해낸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자가 지닌 물질적, 정신적 가치에 현혹되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한다. 동등해질 수 없는 사회의 구조에서 자신이 가지지 못할 환상을 갖고 싶다는 욕심은 결국 비교 대상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표출된다. 작은 미움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감정은 결핍과 욕망을 마주하며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진 타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그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도덕적 혐오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소수가 아닌 다수로 집결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에 비해 전이되기 쉽고, 확산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집단적인 증오와 멸시 성향이 생겨나려면 (중략) 사회적으로 증오와 멸시를 당하는 이들이 오히려 사회에 피해나 위협이나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뉴스와 이야기들이 그 역할을 이미 수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sup>47)</sup>

반대로 공존을 꾀하는 사회에서 공멸로 치닫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야기들도 존재한다.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을 이야기 한 영화 <기생충>이 이에 해당하며, 현실을 재현한 작품 속 세계를 통해 혐오의 원인과 해결방식을 모색함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영화 <기생충> (2019)

경향신문, “웹툰 ‘외모지상주의’ 또 혐오 논란... 네이버, ‘보여주기’ 만 하면 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6161001&code=940100#csidx1a4fa41e09f35cd96936ab71b1ca1e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6161001&code=940100#csidx1a4fa41e09f35cd96936ab71b1ca1e9), 2020.04.26.

동아닷컴, “강남산다고 다 부자인가? 반지하방에도 계급이 있다는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1/96432097/>, 2019.07.11.

서울경제, [종합]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던진 질문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BH6EPH3>, 2019.05.28.

원아시아, [TEN 인터뷰] 송강호 “ ‘기생충’ 의 김기택은 감정의 낙차 폭이 큰 인물이죠 ”,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312/0000390793>, 2019.05.31.

### 2. 단행본

김혜영, 『분열된 주체와 무의식』, 푸른사상, 2013.

---

47) Christoph Demmerling, Hilge Landwehr, *Philosophie der Gefühle*, Stuttgart, 2007, S.296 ; 캐롤린 엠케, 앞의 책, 76면 재인용

- 마사 너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강동혁옮김, 뿌리와이파리, 2016.
-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옮김, 민음사, 2015.
- 막스 호르크하이머, 테오도르W.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옮김, 문학과지성사, 2001.
- 신구 가즈시게, 『라캉의 정신분석』, 김병준옮김, 은행나무, 1995.
- 정일권, 『질투사회』, CLC, 2019.
- 캐롤린 엠케, 『혐오사회』, 정지인옮김, 다산초당, 2017.

### 3. 논문

- 고현범, 「누스바움의 혐오 회의론」, 『철학탐구』 제43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6.
- 고현범, 「칸트 철학에서 혐오 감정」, 『범한철학』 제32집 제3호, 범한철학회, 2016.
- 김문주,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냄새의 타자성」, 『인문사회 21』 제11집 제2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 김세원, 「혐오에 대한 이해」, 『한국여성철학』 제30권, 한국여성철학회, 2018.
- 나병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혐오발화와 미학적 은유의 응수」, 『청람어문교육』, 제57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 성일권, 「중산층의 ‘계급탈락’ 공포와 증오의 일상성, 그리고 상징폭력」,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9.
- 손성우, 「영화 <기생충>의 욕망의 자리와 환상의 윤리」, 『영화연구』 제81호, 한국영화학회, 2019.
- 신은화, 「혐오와 지배」, 『철학탐구』 제143집, 대한철학회 논문집, 2017.
- 안은선, 「공간에서의 선의 조형성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제23집 제1호,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20.
- 육정학, 「영화 <기생충>을 통해 본 가족과 사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제14집 제5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 윤하나, 김상호, 「욕망을 추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거리와 혐오의 일상화」, 『언론과 사회』 제26집 제1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8.

- 이광진,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법과 정책연구』 제17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
- 이다운, 「영화 <기생충> 연구-희비극으로 재현한 계급공존의 불가능성」,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제101집, 2019.
- 임옥희, 「혐오발언, 혐오감, 타자로서 이웃」,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6.
- 정다영,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정현경, 「평등의 몰락에 대한 영화적 대응과 의미」, 『비평문학』 제75호, 한국비평문학회, 2020.
- 최성희, 「폭력과 초월-타자에 대한 폭력과 타자성의 폭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송희, 「가난 재현의 정치학 : 영화 <기생충> 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8권 제1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0.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and Expressions of hatred  
in the Movie '*Gisaengchung*'

Song Dayeong

We live by feeling countless emotions.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re is a strong sense of "hate" Where does hate occur? An aversion com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ing me to a batter. In other words, when one's own deficiency is satisfied, a jealous and jealous heart becomes hateful, its hatred becomes anger, and the direction of anger is not singular but a complex majority, extending into a thoughtless hatred of the object. The film "Gisaengchung" in this study tells the story of two families living on different levels, who have less capital than themselves, and their uncomfortable feelings toward each other because of their large capital, eventually leading to tragedy. Park Dong-ik's family cannot live without Kim Gi-taek's family and family members, so it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pays the labor cost to those who provide the labor force and forms a "parasitic" to each other. However, Park Dong-ik's words and actions, which express hatred toward the weak in the form of "Smell" and "Line," reveal his gaze at the batter. The gaze leads to the murder of Park Dong-ik in response to Kim Gi-taek's hatred speech. Kim Gi-taek's acts of murder are forbidden according to morality and ethics as well as social norms.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 "Hatred" and the "Hatred-express" that cause Gi-taek's murder are generated and the process of being expressed.

Key words : Movie, Gisaengchung, Hatred, Hatred Speech, Violence, Others, Symbiosis

접 수 일: 2020년 8월 9일

심사기간: 2020년 8월 17일~2020년 9월 19일

게재결정: 2020년 9월 20일